

# 아이를 하나 더 낳아? 말아?

허남주/대한매일신보 뉴스피플팀 차장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9년 인구동태조사결과에 따르면 99년 출생아 숫자는 98년보다 2만7천명이 줄어든 61만6천명으로 이는 연간 출생아 숫자를 파악하기 시작한 지난 70년(100만6천명)이래 최저치이다. 출산율은 1.42로 미국과 영국보다 낮고 '인구감소 망국론' 까지 나오고 있는 일본을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본 출산율이 1.34명(98년).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해도 효과가 없어 '국가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막상 우리와 그리 큰 차이가 없어보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이대로 간다면 2028년 이후 인구성장률이 0이 되고 2050년에는 인구가 지금의 70%선이 될 것이란 보도는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원인은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늦추고 꺼리는 것과,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아지거나 환경오염으로 불임도 늘고 있는 것도 우려할 요소란다.

도대체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 '용감하게' 지난 시대처럼 아이를 여럿 낳을 수 있겠는가.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육아는 직장여성의 발목을 거머쥐는 텃입에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도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분명한 요소이다.

이런 상황에 나는 때아닌 고민에 빠졌다. 출산율을 저하가 노동력 감소를 야기하고 결국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국력의 쇠퇴를 염려해야할 사태를 맞았다는데 아이를 더 낳아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정말 통계대로 한국의 가족계획정책은 '산아제한'이 시작된 지 불과 30년만에 정반대의 상황으로

내몰리게됐을까 하는 의문과 어떻게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는지도 궁금했다.

다행히 결론은 아이를 더 낳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쪽으로 내려졌다.

통계수치에서는 호들갑스런 우려를 낳았지만 우리는 경적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라는 사실이 선부른 걱정을 막는다.

그 다음, 개발도상국에서 인구동태신고율은 매우 낮아 10년의 자연신고도 적잖은데 그런 요소가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의문이 따른다.

또 평균결혼연령이 상승하는 우리나라같은 상황에서는 15살부터 49살까지 가임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배출산율로 이를 측정했어야한다는 지적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됐다.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지난 89년 인구추계조사 결과와 90년 인구센서스 결과가 너무 차이가 크자 통계당국에서는 무려 52만명이 중복조사됐으며 자료보정과정에서 누락시켰다고 한다.

이는 통계를 다루고, 만드는 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미룬다해도 인구문제를 수치만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반증임은 확실한 것 같다.

아, 이제 갈등에서는 빠져나온 셈이다. 아이는 더 이상 낳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아쉬운 것은 왜일까.

인구가 줄어서 오랜만에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될 것이고, 출산장려정책으로 여성정책이 대폭적으로 발전할 것이란 기대가 와르르 무너진 것 같다.

출산가산점이 주어질 것이라든지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도록 여성들에게 최선의 배려를 할 것이라던 달콤한 상상은 역시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